

고양이 관찰 기록

목차

1. 아침 행동
 2. 식사 습관
 3. 물 마시는 습관
 4. 낮 시간 행동
 5. 저녁 행동
 6. 밤 행동
-

1. 아침 행동

- 알람보다 먼저 집사를 깨운다.
- 머리맡에서 앞발로 이불을 꺾꺾 누르거나 발톱을 세워서 신호를 보낸다.
- 무시하면 꼬리를 얼굴에 갖다 댄다.
- 결국 집사가 일어나게 된다.

2. 식사 습관

- 건사료는 거의 먹지 않는다.
- 참치캔을 열어야 적극적으로 반응한다.
- 단, 캔을 아무 그릇에 담으면 먹지 않는다.
- 작은 흰색 도자기 그릇에 담아줘야만 코를 박고 먹는다.
- 다른 그릇에 주면 바닥을 긁는 행동을 하며 거부한다.

3. 물 마시는 습관

- 먼저 앞발을 물에 담갔다가 핥는다.

- 물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직접 혀로 핥는다.
- 물그릇 주변은 항상 조금 젖어 있다.
- 세면대 고인 물이나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.

4. 낮 시간 행동

- 대부분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.
- 창밖의 새, 나뭇잎, 벌레 등을 관찰한다.
-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집중한다.
- 창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.

5. 저녁 행동

- 집사가 소파에 앉으면 바로 옆에 자리 잡는다.
- 무릎 위에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.
- 팔꿈치 옆, 딱 붙은 위치에 눕는다.
- 손을 내밀면 이마를 살짝 비비고 다시 가만히 눕는다.

6. 밤 행동

- 집사보다 먼저 침대에 올라간다.
- 이불이 덮이기를 기다린 뒤 발치에 자리를 잡는다.
- 새벽 3시쯤 꼭 한 번 집안을 순찰한다.
- 발소리를 들으면 잠시 깨지만, 다시 돌아와 발치에 눕는다.